‘적법한 근로계약’ 이렇게 힘드나

한국어 강사 투쟁, 왜?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국제교육원(국교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국교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반발했다. 강사들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채, 강의 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어 강사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강사 수당은 수업 시수 별로 주어지지만 학생이 다쳐 입·퇴원 수속을 도우러 가거나, 경찰서에 있는 경우 밤늦게 달려가야 한다”며 “수업 이외의 예산관리, 학생유치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는 무급노동, 무료봉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유노동, 무임금’의 부당한 강제 노동인 행정 업무를 거부하면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당 노동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한국어 강사들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수업 이외 강사에게 부여되는 ‘을으로서 의무’에 대해서 당연시하도록 하는 조항들만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계약기간 또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월로 한정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강사 B씨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설명회는 없었고 계약서를 내밀고 수 일 이내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강사들은 이 계약서를 거부했고, 결국 현재는 무효화된 상태로 명문화된 계약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후 강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전체 강사의 98% 내외인 106명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여 한국어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적법한 계약서 작성을 대학본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교는 약 반년 간 이렇다 할 대응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입사한 소수의 강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강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교원의 강사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대학원)가 아닌 학교의 부속기관에서 단기성의 어학코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대우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이다.

강사 C씨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소득은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소득으로 3.3%의 소득세를 부과받는 학원 강사와 달리 현재 한국어 강사들은 8.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강사 A씨는 “국교원의 특성상 교육원 내부는 사제지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작년 부당한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무기 계약직으로 생각했다”며 “지금까지는 그나마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감수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가 당연시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고용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국교원 측은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을 ‘관례’라고 일축했다. 국교원 홍윤기 원장은 “과중한 업무는 교육의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며, 국교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도왔지만 잡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어 강사들이 주장한 ‘갑질’ 역시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20시간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학교 국교원은 국내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규모다. 연간 1,200명의 유학생을 약 100여 명의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강사 A씨는 “더 작은 기관의 한국어 강사들은 이마저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희대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계약서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자보 붙일 곳 없는 국제캠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대자보는 대학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매체다. 대자보는 과거부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대자보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국제캠에는 대자보를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체제가 다소 미흡하다. 멀티미디어관(멀관) 및 단과대학이 대자보를 정식 게시물로 취급하지 않으며, 게시 기간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캠퍼스(서울캠)만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다. 총학생회(총학)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3곳에 간격을 두고 게시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대자보가 여기에 수시로 걸린다. 심지어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대자보가 붙어있다.

교양 수업이 이뤄지는 멀관은 학사와 관련된 게시물만 게시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은 “멀관 게시판 이용 시 반드시 게시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대자보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다만 날인 없이도 2~3층만 한해 붙일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뗀다”고 밝혔다.

과거 전공기초수업 조교 문제로 대자보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한 단체는 “행정실에서 승인 없이 붙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에 힘이 빠졌다”고 토로하며 “정해진 수량만큼은 짧은 기간이라도 게시를 보장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제캠에서 대자보를 정식 게시물로 인정하는 곳은 학생회관 총학 게시판과 학생지원센터 게시판뿐이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대자보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총학에 불리한 글이나 익명이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구성원의 대자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간 ‘국제캠퍼스 내 대자보 게시 시설과 구성원 인식의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제캠퍼스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6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70%(42명)가 종이 대자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슈가 발생하는 곳에 직접 게시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가 학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오늘날에도 종이 대자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어 공식적인 대자보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드러났다. 60명 중 48명(80%)이 ‘서울캠처럼 중앙게시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캠 내에는 가시성 좋은 중앙게시판이 없어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서울캠 총학은 “게시 기간이 지나면 게시자 혹은 총학이 게시물을 수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이나 제재는 없으며 관행상 익명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대학교에서는 ‘게시자 중심’으로 게시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도 없다. 게시 공간 또한 우리학교와는 비교가 되는 규모다.

서울대 자치도서관 위원장은 “관행상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 10군데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이 대자보를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43%(26명)이 ‘구성원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소범기(응용수학 2014) 씨는 “애초에 대자보가 게시된 모습을 접하기 어려우니 구성원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종이 대자보는 보통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부착된다. 사람들이 오고가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접할 수 있다.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 등 SNS와 같이 한 번 스쳐가는 매체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셈이다.

무엇보다 대자보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여론 형성이 되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 교직원과 교수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우위를 점한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SNS는 정보 교류가 주목적인데 비사용자는 SNS에서 교류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이 대자보와 같은 올드 미디어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특히 여러 매체에 골고루 노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대자보’를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붙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로 풀이한다. 대자보가 대학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대학교라면 대자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장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수업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과목 확인	2019.05.13(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9.05.27(월) 17:00 까지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학번부여: 2019.05.31(금)	
수강신청기간	2019.06.12.(수) 10:30 ~ 06.13(목) 17:00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khu.ac.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9.06.17(월) 12:00 (1차) 2019.06.20(목)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등록금 납부기간	2019.06.17(월) 09:00 ~ 06.19(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9.06.20(목) 09:00 ~ 17:00	서울 : 교무처 학사지원팀 방문 국제 : 교무처 교직팀 방문(2차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9.06.24(월) ~ 2019.07.15(월)	
성적입력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열람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정정일	2019.07.17(수) ~ 07.18.(목)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5: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타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2)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인포21→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력사항: 학년) 2019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9.06.21(금) 17:00	전액 환불	서울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캠퍼스 : 교무처 교직팀 방문→ ‘계절수업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봉)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서울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캠퍼스 : 교무처 교직팀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9.06.24(월) ~ 06.28(금) 17:00	수강료의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9.07.01(월) ~ 07.03(수)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5명 이상, 교양 20명 이상(소규모 강의 15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불가
라. B⁰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수업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불가(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각 캠퍼스 담당부서 (서울 :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 : 교무처 교직팀)로 방문
사. 계절수업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F(또는 N)가 부여됨
아. 계절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수업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수업연한초과자는 휴학 중 계절수업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가. 서울 :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961-0053 ~54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1층 113호
나. 국제 : 교무처 교직팀 / 031)201-304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본부W